

공정거래 자율준수로 더욱 빛나는 기업 가치, 포스코

포스코(대표 정준양)가 지난해 실시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2010년까지 'AA' 등급을 3회 연속 획득했다. 이는 국내기업 중 최초의 사례로 포스코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계기가 됐다.

지난 2002년부터 CP를 도입한 포스코는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자율준수관리자 운영, 자율준수편람 배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감독체계 구축 등 CP 7대 요소의 근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사내 공정거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왔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 포스코강판, 포스코 ICT 등 계열사인 포스코패밀리에 CP 도입을 지원하고 공정거래 아카데미(Fair Trade Academy)와 동반성장·공정거래 임원협의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포스코패밀리 모두에게 공정거래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 최초로 CP 등급평가 3회 연속 'AA' 등급 획득



포스코 자율준수관리자 박귀찬 상무

포스코 자율준수관리자인 박귀찬 상무는 국내 기업 최초로 3회 연속으로 CP 등급평가 'AA'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전 임직원이 자발

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2년 CP 도입 이래 CP의 사내문화로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로 CP 운영 우수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는 것. 박귀찬 상무는 "포스코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정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 계열사로서까지 자율준수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앞장서고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정거래역량 강화와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포스코는 다종다양한 CP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2002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해 CP를 실천해오고 있다. 2004년 4월에는 동종업계 최초로 CP 운영 전담부서인 '공정거래지원팀'을 신설해 사내 공정거래문화 전파를 주도하고 그 확산을 위한 폭넓은 지원활동을 전개해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CP 도입 이전인 1996년 최초 제작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발간해오고 있다. 또한 현업부서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공정거래 상담을 비롯해 공정거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자율점검과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율준수풍토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박귀찬 상무는 "현업부서가 업무 집행 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공정거래 자율점검은 지난 3년간 1,800여건에 이를 만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법 위반 여부 등 사후 점검활동과 포스코 계열사 공정거래 담당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분기 단위로 실시하는 FTA(Fair Trade Academy) 등을 통해 포스코 뿐만 아니라 포스코 계열사로서까지 공정거래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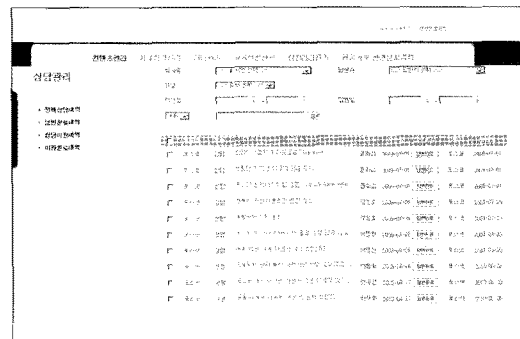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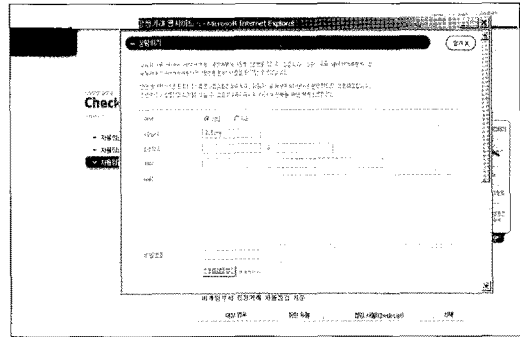
던 점이 지난 CP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한 동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활발한 CP 활동을 전개한지 10여년이 되어가고 있는 포스코지만, 2002년 CP 도입 이전까지는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라는 용어 자체가 무척 생소해왔었고 ‘공정거래법은 일부 부서에만 적용되는 한정된 법률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CP 운영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가 사내문화로 뿌리를 내린 지금에 와서는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업무와 관련한 공정거래 질의 및 법위반 여부 자율점검 실시 건수가 2010년도 기준으로 각각 50여 건과 600여 건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의지에 대한 높은 참여와 관심을 방증하고 있다.

공정거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 자율 점검과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운용

“CP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포스코의 CP 운영상 특징적 요소로 지목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 전용 웹사이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 임직원은 이 전용 웹 사이트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점검과 관련 정보 파악과 질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마다 현업부서의 공정거래교육 관련 수요를 파악해 이를 교육일정과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이메일,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임직원과의 실시간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과 더불어 현업부서의 ‘공정거래 도우미’라고 말할 수 있는 ‘공정거래 실천리더’ 제도를 통해 보다 가까이에서 공정거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근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라고 박귀찬 상무는 설명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정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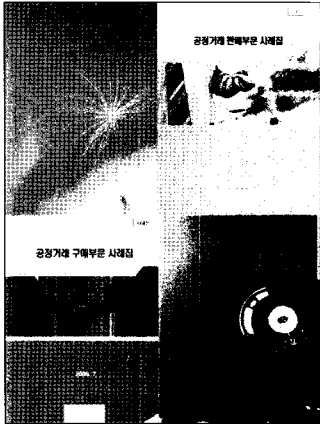


포스코 공정거래 전용 웹사이트 (사내)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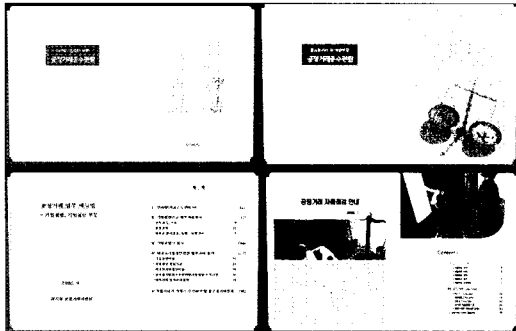
자율점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지난 3년간 자율점검 건수만 1,800여 건을 상회할 만큼 법 위반 사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의 호응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편람과 e-북을 비롯해 집합교육과 e-러닝으로 세분화된 공정거래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내외의 교육과정 수립과 그 시행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을 실무적으로 지원해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와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확산과 더불어 CP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부서별 공정거래 ‘Key-Job’ 요원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공정거래 실천리더들은 협의회 위원을 보좌하여 소관 부서의 자율점검상황을 총괄하고, 공정거래 관련 상담과 지도, CP 운영 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부서별 CP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논리적으로 잘 짜인



이론적인 틀을 갖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현실과 현장에서의 괴리와 운영상의 딜레마가 뒤따르는 경우를 언제라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코의 CP 활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정거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공정거래 자율점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케팅과 구매 등 현업부서에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포스코의 공정거래편람과 e-북 (온라인)

관련 의문사항이나 이슈를 자율적으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는 임직원들로부터 자율점검의 필요성과 그 효과,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의구심이 다소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 유관 부서와의 꾸준한 협의 등을 통해 지금은 포스코 CP 활동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CP는 주관 부서의 일방행식의 실행의 지보다는 현업 부서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P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고 박귀찬 상무는 강조한다. 포스코는 이렇듯 사내 각 부서 및 임직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지와 실행 사이의 딜

레마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고 있다.

포스코패밀리 모두 함께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동반성장

CEO인 정준양 회장이 지난해 포스코 윤리규범 선포 7주년을 즈음해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의 중요성에 대해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낸 바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중요성을 그 어느 기업보다 절감하고 있다.

박귀찬 상무는 "현업부서가 업무 수행 시에 부서별 특징에 따라 법위반 리스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별 특성을 감안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임직원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출자사는 하도급법이나 공시 등의 업무 특성에 맞춰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 역시도 법조문보다는 실제 사례 위주로 풀어나감으로써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포스코패밀리는 지난해 8월 18일 '포스코패밀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해 상생과 공정거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현대 기업경영에 있어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 CP를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포스코는 계열사인 포스코패밀리 모두에게도 CP의 적극적인 운용과 전사적 확산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패밀리의 CP는 법위반행위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자율준수 마인드 제고를 통한 공정거래준수문화 정착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업무처리 이전에 법위반 여부의 자율점검 실시 및 사후 모니터링 등 CP의 기본적인 활동의 체질화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을 위한 포스코패밀리 공정거래 아카데미(Fair Trade Academy)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공정거래 아카데미를 통해 CP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정거래



포스코패밀리는 지난해 8월 18일 '포스코패밀리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해 상생과 공정거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관련 정보를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포스코패밀리 직원들의 공정거래 마인드를 고양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지난해 10월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공정거래 임원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대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실천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최된 것. 협의회는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동반성장·공정거래 임원협의회를 분기마다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향후에도 학습동아리 운영과 사내외 전문교육 및 간담회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CP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문화가 체화될 수 있도록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에 이바지

박귀찬 상무는 "CP는 기업 스스로 상당한 비용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만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층의 확고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하고, 궁극적으

로는 임직원 모두의 자율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결코 쉽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CP를 도입한 이후에 나름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수기업에게는 법위반 시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지만, CP 운영 우수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기준에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기업이 CP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겁니다"라며 CP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우리 포스코 임직원 일동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상생'하고 '투명'한 회사 경영을 통해 '보람' 있는 회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감으로써 포스코 윤리경영의 초석이 되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포스코 윤리경영의 기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으로 이는 '상생-투명-보람-책임'의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상생'은 고객과 공급자와의 관계에서의 가치로서 거래하고 싶은 회사를, '투명'은 주주와 투자자와의 관계에서의 가치로서 투자하고 싶은 회사를, '보람'은 임직원과의 관계에서의 가치로 자랑스러운 회사를, '책임'은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가치로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

posco